

기자과 과학자

글 | 박성철 _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강사 sc0314@freechal.com

아직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언론사 ‘기자’를 반기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과학자들만이 기자를 편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대기업 홍보실 직원도 그렇다. 그러나 이들의 ‘기자 대하기’는 과학자와는 차이가 있다. 기자들이 없는 자리에선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을지언정 내놓고 불편한 감정을 내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자 앞이라고 해서 굳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의 ‘무지’에 대한 지적은 전문성에 대한 분발을 이끌어낼 것이고, 정도를 넘어선 질문을 적절히 제지하는 것은 취재원과의 신뢰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자와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는 과학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언론 제작 메커니즘 알면 왜곡·허위보도 다소 해소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기자나 언론과의 접촉 자체를 피한다. 언론으로부터의 취재나 인터뷰 요청을 예외 없이 거절한다. 실제로 바쁘기도 하거니와 그들을 만나서 득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지 과학과 언론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확신이다.

악의적인 왜곡보도, 허위보도에서부터 인터뷰 내용의 교묘한 편집이나 선정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언론보도의 문제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이나 용어를 잘못 표기하는 등의 실수나 취재과정에서의 무례 등 저널리즘 윤리나 인간적 예의까지도

확대하면 누구나 한 두 번은 경험했거나 공감하는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와 갈등을 과학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언론학자들은 뉴스의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일차적 책임은 언론사와 기자에게 있다. 물론,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비판적 시각이다. 그들은 수습기자 시절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훈련받는다. 모든 것을 ‘그러려니’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로는 사회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연구실에서만 생활하던 과학자의 눈에는 낯설 수도 있다.

여하튼 언론보도와 기자로 인한 문제들을 그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과학자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언론의 제작 메커니즘과 기자들의 제작환경을 이해한다면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접촉 당시의 개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문제발생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다. 예컨대,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가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 그 언론사의 성향은 어떠한지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인터뷰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인지, 과학면 기사인지 인물면 혹은 특집면 기사인지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자가 알아서 잘 쓰겠지 하는 생각은 문제를 키우는 꼴이다.

기자의 취재 목적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기자들이 과학자를 찾는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과학 분야와 관련해서 폭 넓은 아이디어를 구할 때다. 두 번째는 과학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요구할 때다.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의 의견을 구할 때다. 첫 번째 경우는 기사의 아이템 탐색을 위한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방송국 PD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과학자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말 그대로 정보의 '탐색' 차원이기 때문에 기자나 과학자 모두 부담이 크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다. 두 번째 경우와 관련한 과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지나치게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2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들에 성실히 답해 주었는데 고작 20초 방송되더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기자의 연이은 질문들은 긴 기사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압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잘 알아야 짧고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살려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 지면의 제한과 방송뉴스 폭지의 시간제한은 절대적이다.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템이 제외될 수도 있다.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러한 시공간적 제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매체인 이상,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지식도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복잡하고 긴 글, 지루하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독자를 쫓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되기를 희망한다면, 과학자가 먼저 10년 간의 연구결과를 30초로 줄여놓고 기자를 기다려야 한다.

과학자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사례는 대개 세 번째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대, 광우병이나 멜라민의 경우와 같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토픽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공정하게' 양쪽의 견해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위험한 점이 있지만, 현재의 이런 조건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다음날 기사나 방송에는 앞부분만(또는 뒷부분만) 편집되어 '대단히 위험하다(또는 위험하지 않다)'는 뉴스의 근거로 제시된다. 취재에 응했던 과학자는 자신의 발언이 교묘히 왜곡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위험하지만 조심하면 된다거나, 안전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기 어렵다.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던 대상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왔던 것이 실제로는 안심해도 된다는 정보가 뉴스로서 가치를 갖는다. 기자는 이미 기사의 방향을 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코멘트를 해줄 전문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구체적인 과학적 분석보다 과학자의 '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길 없는 과학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응했다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보도된 기사로 인해 봉변을 당하기 쉽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쪽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없다면, 언론과의 접촉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취재의 의도와 방향, 어떤 기사(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기자 잇는 전문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대안

이처럼 기자가 어떤 목적에서 과학자를 취재하려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취재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 주는 것은 기자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언론학자들의 분석과 비판,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반성과 개선노력과는 별개로 과학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만으로도 시간에 쫓기는 과학자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나 대학과 같은 곳에서는 과학자와 언론(인)을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홍보실 기능을 보다 전문화하고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과학자 개인에 대한 인터뷰 요청도 모두 홍보실을 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보실은 매체와 해당 독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재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자에게 인터뷰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코멘트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속 과학자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매체와 독자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언론사에 팩스와 이메일을 보내고 기자들 밥 사주는 일이 전부인 홍보실 직원이 아니다. 과학자의 연구내용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미디어 환경과 제작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과학도 잘 알고 언론도 잘 아는 전문 과학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 **SD**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과학문화이카 데미 교수부장,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냈다.